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8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

-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
- 7월에 이은 백투백 인상: “인상 이어갈 필요” 반영한 2회 연속 인상 전망
- 크게 상향될 성장률 전망 반영. 기존 2.6%에서 3.2~3.3%로 상향 예상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 조정 속 SK하이닉스가 꺼낸 주주환원 카드

- 글로벌 메모리 동반 급락, SK하이닉스 주주환원에 NXT서 낙폭 축소
- 고금리·중동 리스크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 증시 전반 약세 속 수주 모멘텀 부각, 건설주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 News] 방위산업: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 그 이상의 의미

- 국내 체계 중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
-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가 가지는 그 이상의 의미
- 방위산업 블록화를 넘어선 K9 자주포, 확산 가속화 전망

최정환. jeonghwan.choi@daishin.com

[2Q26 Review] 이마트: 본업 개선 불구, 자회사 불확실성이 아쉬운... (목표주가 28% 하향)

- 오프라인 할인점 실적 양호
- 주요 자회사 부진이 실적에 발목
- 본업 업황 양호. 다만 주가 상승 위해 자회사 실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고배당 고금리 Issue Comment] KT: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 CEO 콤데이를 통해 AX 성장 전략 발표
- AI 인프라 매출 목표 제시. 26E 9천억원, 31E 4.8조원
- 26E TSR 8.2천억원. 비핵심자산 유동화시 추가 주주환원도 가능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Issue Comment] 롯데렌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TPG에 인수로 이슈 소멸보다 경쟁력 확대에 주목
- 2027년 배당 정책 상향, 단기적인 레버리지 정책으로 점유율 확대 추진
- 사모펀드 입장에서 롯데렌탈의 기업 가치 확대에 주력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8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

-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
- 7월에 이은 백투백 인상: “인상 이어갈 필요” 반영한 2회 연속 인상 전망
- 크게 상향될 성장률 전망 반영. 기존 2.6%에서 3.2~3.3%로 상향 예상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앞선 7월에 이어 2회 연속 인상으로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투백(back to back)” 금리 인상. 특히 크게 상향될 성장률 전망 반영

지난 7월 직후 당사는 당시 금통위 및 신현송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놓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총재가 해당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인데 따른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실물 경제 여건이 큰 폭의 성장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예상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 이어, 내수 지표들 역시 연쇄적으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당사는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각각 1회씩(25bp 단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예상되는 최종금리 수준 역시 기존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다(2026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 3.25%, 2027년 1분기 말 3.50% 예상).

26년 성장률 전망 최대 3.5%까지 가능, 물가는 근원 물가 전망 상향 예상

한편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진행되는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 대한 예상도 함께 제시토록 하겠다.

당사 이정훈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2.6%에서 3.2~3.3%로 상향될 전망이며, 낙관적 시나리오가 반영되면 최대 3.5%까지도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2027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2.5% 내외로 상향될 것을 예상한다.

물가의 경우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헤드라인은 기존 2.7%로 유지될 것인 반면 근원 물가 전망은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헤드라인은 2.3%로 유지, 근원물가는 2.3%에서 2.4%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조정 속 SK하이닉스가 꺼낸 주주환원 카드

- 글로벌 메모리 동반 급락, SK하이닉스 주주환원에 NXT서 낙폭 축소
- 고금리·중동 리스크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 증시 전반 약세 속 수주 모멘텀 부각, 건설주 강세

글로벌 메모리 동반 급락, SK하이닉스 주주환원에 NXT서 낙폭 축소

반도체 업종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되돌림이 일어나며 약세 전개

글로벌 메모리 기업의 주가는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경향. 전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7.0%), 샌디스크(-9.0%), 웨스턴디지털(-7.4%) 등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된 점도 국내 반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

일본 증시에서도 키옥시아가 약 -13% 급락했으며,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세 마감

한편 SK하이닉스는 장 마감 후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결정을 발표. 여기에 누적 FCF 50%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 이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NXT에서 낙폭 회복

반도체: 삼성전자(-7.8%), SK하이닉스(-9.8%), SK스퀘어(-11.5%)

고금리·중동 리스크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미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2년물·10년물·30년물이 각각 4.16%, 4.69%, 5.27%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

중동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발언

여기에 이란 관계자는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자산에 대한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

이에 WTI 선물 84.6달러, 브렌트유 선물 91.3달러로 높은 레벨 유지

증시 전반 약세 속 수주 모멘텀 부각, 건설주 강세

위축된 투자심리 속 업종 전반 약세. 일부 수주 업종으로 순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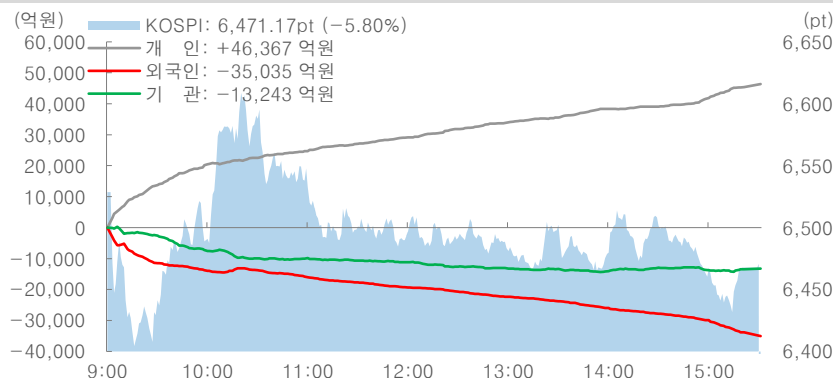
건설: 현대건설(+5.8%), 삼성E&A(+1.3%), DL이앤씨(+1.7%)

자동차: 현대차(-4.8%), 에스엘(-6.0%), DN오토모티브(-13.9%)

소비재: 롯데쇼핑(-5.7%), 신세계(-5.7%), 현대백화점(-5.2%), 영원무역(-4.7%)

증권: 키움증권(-6.4%), NH투자증권(-5.3%), 미래에셋증권(-4.5%)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방위산업

최정환 CFA

jeonghwan.choi@da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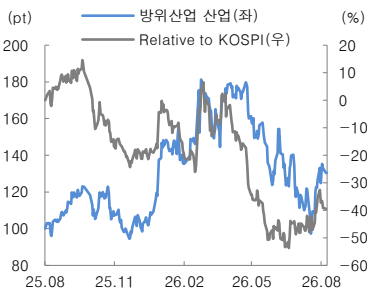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Buy	1,720,000원
한화시스템	Buy	103,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6	-13.3	-3.9	26.7
상대수익률	9.8	-5.1	-23.0	-41.4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 그 이상의 의미

- 국내 체계 중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
-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가 가지는 그 이상의 의미
- 방위산업 블록화를 넘어선 K9 자주포, 확산 가속화 전망

국내 체계 중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

미국 현지 기준 8/18, 미 육군은 차세대 자주포 사업(MTC) 시제 업체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 총 계약 규모는 1억 달러이며 원화로는 약 1,400억 원, 해당 계약은 양산 계약이 아닌 OTA 기반 계약으로 K9 차륜형 6대 시제에 대한 계약임. 사업 타임라인으로는 4Q26 첫 시제 인도가 이뤄지며 미 육군 평가 이후 2Q28 양산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 MTC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M777 견인포를 신규 자주포로 대체하는 것으로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 보병여단전투단(IBCT) 등이 운용하고 있는 견인포가 대상임(최대 498문 추정)

체계 종합의 경우 앨러배마 현지 공장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자주포 운용에 있어 장악이 핵심인 만큼 미국 장악 사업과의 시너지 또한 클 것이라 판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측면에서도 업종 내 가장 매력적인 기업으로 Top-Pick 유지, 적극적인 비중 확대 권고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가 가지는 그 이상의 의미

금번 미국 자주포 사업에는 Rheinmetall, BAE Systems, KNDS, General Dynamics 와 같은 글로벌 지상방산 탑티어 업체들이 입찰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업체로 선정되며 지상방산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업체임을 확인

향후 동사 및 계열사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있어서도 기회 확대를 전망함. 현재 방위산업 수주에 있어서 생산 및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현지투자, 기술이전과 같은 요소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수립한 현지 투자 바탕 중장기 전략이 유효했음을 확인. 지상방산 분야 뿐 아니라 해양 분야의 한화시스템 필리조선소, 글로벌 쇼티지 상태인 장악 또한 미국을 포함해 NATO 회원국들과의 협력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

방위산업 블록화를 넘어선 K9 자주포, 확산 가속화 전망

향후 방위산업에서는 공동조달 및 생산 기조가 강화될 것이며 K9 자주포는 미국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NATO 회원국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 과거 50년간 미국 지상방산 분야는 미국, 영국 기업의 전유물이었으나 MTC 사업 시제 계약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며 글로벌 방위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는 중. 과거 M109 양산 개시 이후 체계 확산이 가속화 된 점을 고려했을 때 K9 자주포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임

미국을 포함하면 현재 NATO 및 서방 핵심 국가 내 K9 자주포 운용국은 미국,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가 있으며 스페인 자주포 사업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 미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하게 되면서 K9 차륜형/궤도형 뿐 아니라 레드백, KRAB과 같은 파생형까지도 빠른 확산을 전망

이마트
(13948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8,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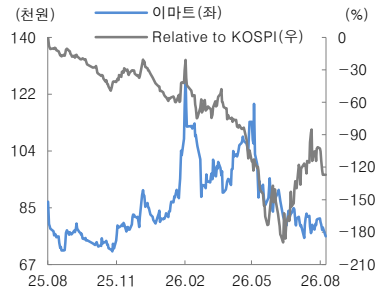
76,100

(26.08.18)

유통업종

KOSPI	6869.83
시가총액	2,10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13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7,600원 / 71,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9억원
외국인지분율	24.57%
주요주주	정용진 외 2 인 28.85% 국민연금공단 8.9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5	-23.3	-31.6	-2.1
상대수익률	-5.2	-16.1	-45.2	-54.7



본업 개선 불구, 자회사 불확실성이
아쉬운...

- 오프라인 할인점 실적 양호
- 주요 자회사 부진이 실적에 발목
- 본업 업황 양호. 다만 주가 상승 위해 자회사 실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08,000원으로 하향(-28%)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108,000원으로 하향. 목표주가 하향은 자회사 실적 부진과 다시 이익 가시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26~27년 실적을 하향한데 따름(2p 참고)

2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계열사의 부진이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그러나 대형마트 산업 경쟁이 완화되며 동사의 7월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8.6%에 달할 정도로 동사의 본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주가는 자회사로 인한 실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 유지

2Q26 Review: 빛 바랜 실적

순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9,150억원(-2%, yoy)과 -430억원(적전 yoy) 기록하며 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 크게 하회

[별도 기준]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기존점 성장률이 각각 3.8%, 4.7%로 매우 양호. 매출총이익률도 0.3%p 개선. 할인점 별도 영업이익은 대형 오프라인 채널의 객수, 객단가가 모두 개선되며 전년비 증익

[연결 자회사]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이 yoy 865억원 감소한 -500억원으로 적자 전환. SCK컴퍼니(스타벅스)가 영업이 -184억원으로 적자 전환(yoy -587억원)했고 신세계건설은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에 대한 대규모 충당금 발생으로 영업적자가 대폭 확대(yoy -390억원)되는 등 자회사 부진으로 본업의 호실적이 희석됨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026		2026			3Q26		
			직전추정	확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7,250	7,401	7,542	7,312	0.9	-1.2	7,372	7,628	5.7	4.3
영업이익	-77	151	103	-10	적지	적전	116	176	10.6	흑전
순이익	-592	266	71	-148	적지	적전	41	87	23.6	흑전

자료: 이마트,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9,021	28,970	29,488	30,929	31,759
영업이익	47	323	353	499	582
세전순이익	-605	376	55	216	329
총당기순이익	-573	246	41	162	247
자배분순이익	-590	136	40	159	242
EPS	-21,166	4,921	1,467	5,747	8,769
PER	NA	16.5	63.2	16.1	10.6
BPS	372,745	397,428	397,617	400,937	407,280
PBR	0.2	0.2	0.2	0.2	0.2
ROE	-5.4	1.3	0.4	1.4	2.2

주: EPS와 BPS, ROE는 자배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이마트,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03020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4,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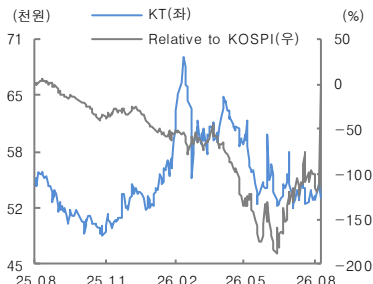
52,600

(26.08.19)

통신서비스업중

KOSPI	6,471.17
시가총액	13,25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1,56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8,900원 / 48,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72억원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1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4	-6.4	-20.2	-5.1
상대수익률	5.8	5.2	-30.0	-53.8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 CEO 콤데이를 통해 AX 성장 전략 발표
- AI 인프라 매출 목표 제시. 26E 9천억원, 31E 4.8조원
- 26E TSR 8.2천억원, 비핵심자산 유동화시 추가 주주환원도 가능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26E EPS 6,193원에 PER 13배 적용. 최근 5년 통신업 평균(KT, LGU+ 기준)에 30% 할증 적용

AIDC와 해저케이블 AX 성장의 핵심

KT는 8/12 CEO 콤데이를 통해 AX 성장 전략 발표

26E 9천억원 수준의 AI 인프라 매출을 31E 4.8조원으로 성장시키는 목표 제시

150MW 수준의 DC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7천억원 매출을

AIDC 1GW 확장을 통해 4.4조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고,

24Tbps 규모의 해저케이블에서 발생하는 2천억원 수준의 매출을

해저케이블 90Tbps 이상의 확장을 통해 최소 4천억원 이상으로 성장시킬 계획

KT는 별도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2%의 매출 성장과 8%의 이익 성장 달성

향후 5년간 당사 실적 전망은 연평균 매출 2% 성장, 이익 10% 성장

5G 보급률이 80%를 상회하면서 무선 성장률은 지난 5년 연평균 2.8% 성장 대비 낮은 2.4% 성장을 예상하나, 마케팅비용과 감가비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익 성장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KT 연결 기준으로는 지난 5년간 3%의 매출 성장, 11%의 이익 성장(일회성 제외) 향후 5년간 당사 실적 전망은 연평균 매출 2% 성장, 이익 6% 성장

AI 인프라 매출 목표 달성시 연평균 매출 3%, 이익 7~8% 성장으로 상향 전망

통신사, SI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AIDC 투자 계획 공개

KT는 DC 관련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고, 자체와 임대 포함 1GW 확보에 5조원의 가장 큰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향후 매출 규모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

안정적인 주주환원, 추가 상향 가능성

동사는 14년 제외시 95년 이후 매년 꾸준히 배당. 20년부터 3년 단위 정책 제시

26~28년 주주환원 정책: 별도 조정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최소 DPS 1,960원에서 2,400원으로 상향

03년 이후 누적 배당성향은 별도 당기순이익의 58%

26E DPS 2,500원(+4%, +100원 yoy).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26.3~9월 자사주 취득분 2.5천억원 등 합산한 26E 총주주환원은 8.2천억원. 26E 배당 수익률 4.8%, 총주주환원 수익률 6.2%

매도가능증권 2.8조원 중 1.1조원은 이른 시일 내에 유동화 가능성 높다고 판단 유동화로 확보한 현금, 재무구조 개선, 투자 및 추가주주환원에 활용 전망

롯데렌탈 (0898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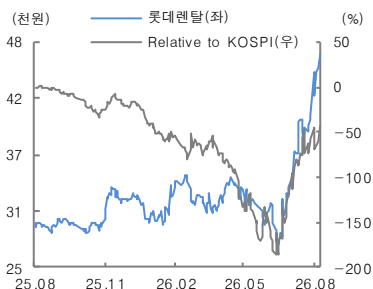
46,850

(26.08.19)

가타서비스업중

KOSPI	6471.17
시가총액	1,70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18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6,850원 / 27,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7억원
외국인지분율	6.38%
주요주주	호텔롯데 외 6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5	49.2	40.1	59.4
상대수익률	34.4	67.7	22.9	-22.4



아직 끝나지 않았다?

- TPG에 인수로 이슈 소멸보다 경쟁력 확대에 주목
- 2027년 배당 정책 상향, 단기적인 레버리지 정책으로 점유율 확대 추진
- 사모펀드 입장에서 롯데렌탈의 기업 가치 확대에 주력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0,000원 상향(13.2%)

2026년 8월 11일,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는 기존의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에서 사모펀드운용사(PE) TPG(텍사스퍼시픽그룹, 지분율은 61.17%)로 변경. TPG가 호텔롯데(38.14%), 부산호텔롯데(23.04%)의 전체 지분을 인수, 주당 59,000원 및 총 1.3조원으로 전체 지분을 현금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향후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인수 승인 여부. 현 시점에서 인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 이전처럼 독과점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 동시에 은행 인수금융 및 신규 자본 조달 없이 100% 자기자금 형태로 인수 진행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주가는 저점대비(6/26 27,100원) 72.9%(8/19 종가) 상승을 시현.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확인되면서 주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시점. 추가 상승은 가능 판단. 목표주가는 60,000원으로 상향(2027년 적용 밸류에이션 상향, 목표 P/E 13.2배),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투자 포인트는

주목할 포인트는 ① 배당 상향 ②시장점유율 확대 ③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기업가치 확대에 주력

① TPG가 인수한 가격은 주당 59,000원, 최대 주주로서 프리미엄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롯데렌탈의 상장 시점에서 공모 가격은 59,000원(2021년), 그동안 매출과 이익 성장을 반영하면 공모 가격의 상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59,000원 기준으로 2027년 P/E는 10.2배, P/B 1배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

② 최종적인 인수 확정(공정거래 위원회 승인은 2026년말 / 2027년초로 예상), 2026년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2027년 배당 확대가 예상. 2026년 매출은 3.08조원, 영업이익은 3,529억원으로 각각 5.5%(yoy), 13%(yoy) 증가 등 성장 확대 및 최대 실적을 예상. 인수 첫 해에 배당을 상향하면서 투자자와 최대주주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 전망

③ 인수 초기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의 확대(밸류에이션 상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추정. 그러면 단기적인 차입 확대로 투입 자동차가 증가하여 장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의 증가,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롯데그룹의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 받아서 렌터카 시장에서 2위인 SK렌터카(부채비율 574%, 2025년) 대비 낮은 372%로 롯데렌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 TPG로 인수된 초기에 차입금 증대로 투입 차량을 높여서 2위와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존. 2027년 외국인 관광 수 증가(2Q26 방한 외국인인 20.4%(yoy) 증가)로 단기 렌탈에서 성장세가 높은 동시에 장기 렌탈도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또한 중고차 렌탈 및 매각 부문의 성장도 존재

④ TPG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동시에 미래의 모빌리티 플랫폼(공유경제, 자율주행, 토털솔루션)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에 관심이 높을 전망.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투자금 회수 차원을 반영하더라도 롯데렌탈과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 플랫폼에서 렌탈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적인 편리성, 그리고 중고차 렌탈 및 매각 사업에 시너지 창출을 전망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